

각시붕어 Korean rose bitterling | *Rhodeus uyekii* (Mori, 1935)



분 포 우리나라 고유어종으로 서해와 남해로 흐르는 하천에 주로 서식

형 태 몸은 옆으로 납작하고, 타원형이며, 입수염이 없다. 체색은 등 쪽이 청갈색, 배 쪽이 은색을 띠며, 아가미 뒤쪽에는 파란색 반점이 있다. 머리 뒤쪽에는 파란색의 굵은 선이 1개 있고 몸의 중앙에서 꼬리지느러미 시작부분까지 세로 줄무늬가 있다.



흔인색을 띠는 수컷



수초가 심어진 각시붕어 사육수조



1) 환경조성

각시붕어의 자연 서식지 환경은 물살이 약하게 있고 바닥에는 미세한 입자와 굵은 입자의 모래가 섞여있으며 수초가 무성하게 자라는 곳에 살고 있다. 수조 내에서는 물살의 흐름이 없어도 적응을 잘하는 편이지만 흐름이 있으면 물살을 따라 유영하는 움직임을 관찰할 수 있다. 바닥재는 입자 굵기가 작은 옅은 색의 모래와 다소 굵은 짙은 색의 모래가 섞여 있는 것이 좋으며 수초는 앞과 줄기의 두께가 비교적 두꺼운 것이 좋다. 납자루아과 어류는 수초를 즐겨 먹기도 하여 수초와 함께 기르기 어려울 수 있다.



사육중인 각시붕어

각시붕어 Korean rose bitterling | *Rhodeus uyekii* (Mori, 1935)

2) 먹이주기

각시붕어는 수서곤충을 비롯해 시판되는 사료까지 대부분 먹어서 먹이주기에 큰 신경 쓸 필요가 없을 정도로 먹성이 좋은 어류이다.

먹이를 주는 횟수는 하루에 2~3번이 좋으며 먹이량은 각시붕어가 3분 이내 모두 먹을 수 있도록 조금씩 자주 주어야 한다.

크기가 큰 개체로 성장시킬 경우 또는 번식을 시도하고자 한다면 장구벌레, 물벼룩 등 시판되는 제품을 주면 도움이 된다.



각시붕어 성어(좌:수컷, 우:암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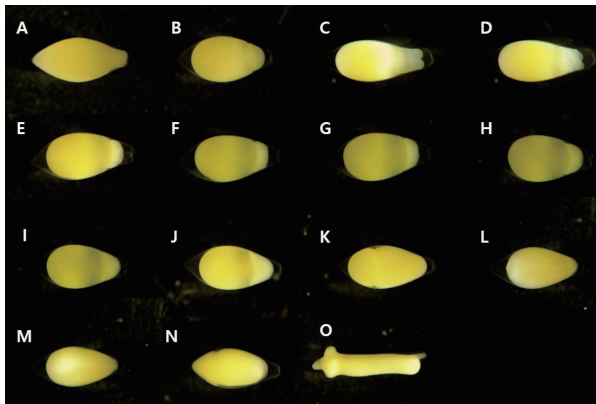
입 주변에 형성된 추성(이차성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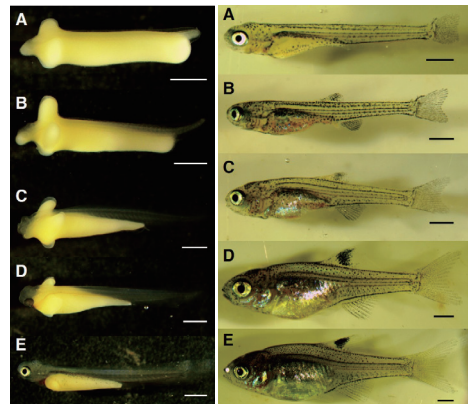
산란이 임박한 각시붕어 암컷. 산란관을 이용해 말조개의 출수공에 산란한다.



산란관이 길게 나온 암컷



난발생 과정(Park and Han, 20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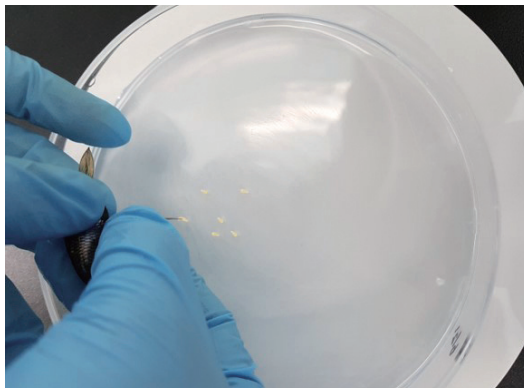
자치어 형태발달(Park and Han, 2018)

3) 번식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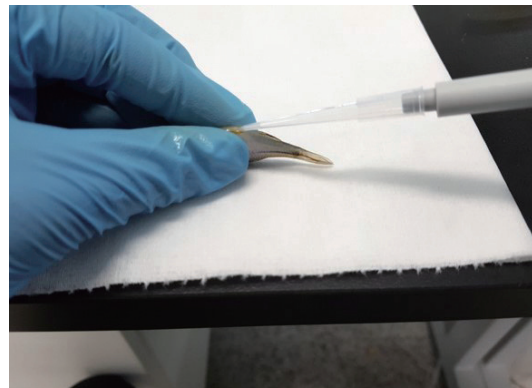
각시붕어의 산란시기는 5~7월로 알려져 있다. 수조에서는 산란에 적합한 수온유지와 말조개만 있으면 지속적인 번식이 가능하다. 각시붕어처럼 납자루아과 어류는 말조개와 같은 담수 이매패류의 몸속에 산란관을 집어넣어 산란하는 특이한 습성을 가지고 있다. 산란 전 각시붕어의 수컷은 암컷에 비해 체색이 아름다운 혼인색을 띠며 말조개 주변에 영역을 형성하여 다른 수컷으로부터 접근을 방해한다.

이때 산란관의 길이가 점차 길어진 암컷은 뒷지느러미 이후까지 산란관이 길어졌을 때 말조개의 출수공에 짧은 시간 산란을 마친다. 이후 수컷은 방정을 하면서 알은 수정이 된다.

수조 내에서 자연산란 된 알은 부화에서 치어가 되기까지 약 20~30일 정도 말조개의 몸속에서 성장을 하게 된다. 치어는 말조개로 부터 나와 유영능력을 갖추고 먹이활동을 시작한다. 자연산란 유도방법은 치어가 말조개로부터 나오기까지 소요되는 오랜 시간 때문에 다소 번식의 매력을 느끼지 못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산란방법은 산란이 임박한 암컷과 수컷의 복부를 압박하여 알과 정자를 수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렇게 수정된 알은 부화기를 통해 알에서부터 치어가 되기까지 성장하는 과정을 눈으로 관찰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채란



정액 채취